

# ‘SonimagFoto 2005’에 다녀와서...

스페인인 화폐가 유로화로 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고 이로 인해 다소 물가상승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잠재 구매력 또한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스페인에는 사진영상기자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품목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사진영상기자재전을 통해 치밀한 준비와 함께 스페인 시장을 공략한다면 2~4년 내에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편집자 주

글/한국광학기기협회 박홍재 과장

제8회 바로셀로나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SonimagFoto 2005)이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로셀로나 국제박람회장(규모: 16,200m<sup>2</sup>)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는 캐논, 후지필름, 니콘, 올림푸스, 산요, 소니, 코니카미놀타, 엡슨, 코닥, 미쯔비시, 노키아, 파나소닉 등 33개국에서 400개 사진영상 관련 브랜드가 참가하여 다양한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주요 출품품목으로는 변함없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하여 포토프린터, 키오스크, 카메라관련 액세서리, 포토앨범 등 각종 사진기자재 등이 큰 축을 차지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층 진보된 카메라폰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의 전통 카메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황과 관련, 세계적인 핸드폰 브랜드인 소니와 노키아 등이 참가하여 최신의 카메라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고로 올해 스페인의 휴대폰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25% 정도가 증가한 15.5백만 개가 판매되었는데 이중 95%가 컬러폰과 다기능폰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교체 할 경우에 60% 정도가 카메라폰을 구매했는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카메라폰 이용자 중에서 약 30%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스페인에서 대개 카메라폰은 1.3 메가를 채택하고 있으

나, 금번 SonimagFoto에서는 2메가와 3.2메가가 메인 으로 출품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조만간 스페인 카메라 폰 시장이 1.3메가에서 2메가 이상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장에는 한국관 외에도 영국사진영상협회 주관으로 국가관이 참가해 한국관과 더불어 바로셀로나에서의 사진영상분야 열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2001년에도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SonimagFoto에 참가한 바가 있는데 그때보다도 규모가 약 5,000 sqm 정도가 증가하는 등 그동안 질적으로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눈부시게 성장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 전시 주최자측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와 장시간(전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임)에 걸친 전시회 운영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게 하고 어느 전시회보다 힘들게 느껴졌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이번 전시회에 디엔제이클럽, 매틴, 유한기획, 캐리마, 하일통상 등 5개사와 함께 한국 공동관으로 참가하여 디지털캐리어, 디카용 가방, 사진 액정코팅기 및 앨범제작기, 열쇠고리, 사진영상관련 액세서리 등을 출품하며 상담액만 637만 유로와 계약액 232만 유로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스페인인 화폐가 유로화로 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고 이로 인해 다소 물가상승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잠재 구매력 또한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시장으



▶ 한국광학기기협회 박흥재 과장. SonimagFoto 2005이 열린 스페인 바로셀로나 국제박람회장 입구에서.



▶ 제8회 바로셀로나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SonimagFoto 2005)이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로셀로나 국제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전시장내 한국공동관에 자리한 한국광학기기협회 홍보관.



▶ 디엔제럴립의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스페인 참관객들.

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스페인에는 사진영상기자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품  
목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스페인

에서 열리는 사진영상기자재전을 통해 치밀한 준비와  
함께 스페인 시장을 공략한다면 2~4년 내에 좋은 성과  
가 예상된다.

###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원고모집 안내 ●●●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수필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3481-8931 • FAX: (02)3481-8669